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 青銅遺物 新例

沈 奉 謹*
鄭 聖 喜

目 次

- | | |
|-------------------------|-----------------------|
| 1. 머릿말 | 5. 金海 禮安里 出土 細形銅劍 |
| 2. 三千浦市 馬島洞 出土 一括 青銅遺物 | 6. 陝川 林北里 出土 細形銅劍 |
| 3. 南海 小草島 出土 粟粒文 十字形把頭飾 | 7. 傳 慶北 永川 出土 一括 青銅遺物 |
| 4. 固城 石芝里 出土 細形銅劍 | 8. 끝맺는 말 |

1. 머릿말

東亞大學校 博物館 所藏品 가운데 近來에 와서 購入 또는 保管되어 아직까지 學界에 紹介되지 않은 青銅遺物이 몇 例 있어 이번 機會에 報告하는 것이다.

勿論 이 大部分의 資料들은 學術的인 發掘調査나 關係 專門家의 손에 의해서 發掘된 것도 아니고 때로는 出土地조차도 確實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遺物 그 自體는 比較的 良好한 狀態를 維持하고 있고, 그 特徵 또한 나름대로 考古學的 資料로서의 價値가 充分한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圖面과 寫眞을 具備해서 여기에 紹介하는 것이니 參考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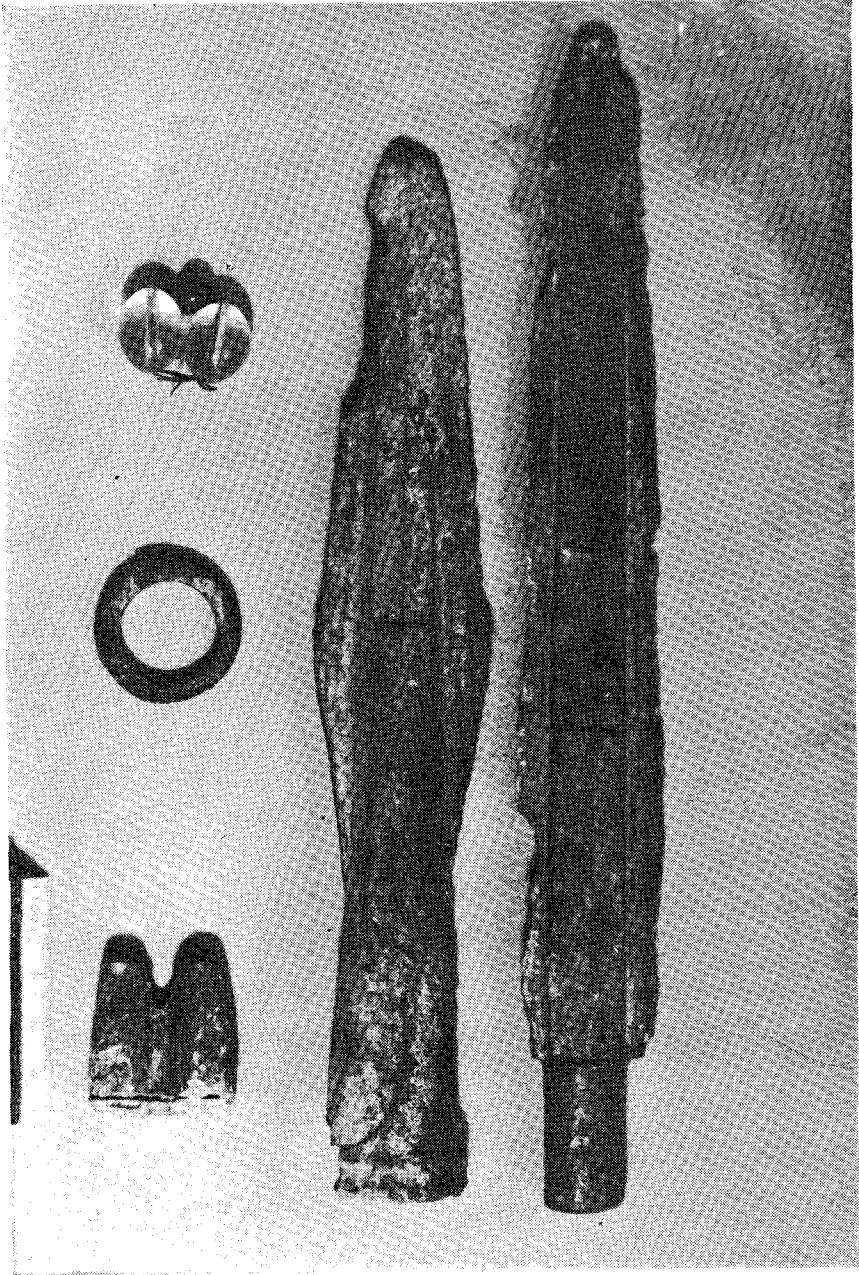
2. 三千浦市 馬島洞 出土 一括 青銅遺物(圖面 1, 圖版 1)

지난 1975年 3月 三千浦市 馬島洞, 俗稱「중섬」이라는 곳에 昌善島로 連結하는 전봇대를 세우는 工事を 하던 중 地下에서 우연히 無文土器 破片과 함께 이 青銅遺物이 發見되었다고 한다.

遺物이 出土된 곳은 慶南 南海郡 昌善島와 三千浦市 사이의 여러 섬가운데 작은 섬의 하나로 여름에는 섬주위 海岸에서 벌치잡이가 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主業으로 하는 民家 3~4戶가 島內에 位置하고 있다.

중섬은 본디 南海岸 特有的 粘板岩 基盤層이 점차 腐蝕되면서 黃土로 變해 가는 좁은 頂上部를 갖고 있는데 遺物은 이 黃土層의 頂上部位에서 發見되었다. 그러나 本人이 現地를 踏査했을 때에는 이미 전봇대는 세워져 있었고, 주위에는 形態를 알아볼 수 없는 赤褐色 軟質의 無文土器片만 떠엄떠엄 흩어져 있을 뿐, 當時 狀況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은 없었다. 여기서 出土된 遺物은 細形銅劍, 細形銅鉞, 銅環, 青銅製異形金具와 유리구슬 3點이 出土되었는데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 東亞大學校 博物館



圖版 1. 三千浦市 馬島洞 出土 一括 青銅遺物

가. 細形銅劍(圖面 1의 ①, 圖版 1)

白銅質로 鋒部와 양쪽 刃部가 一部 破損되었고 表面은 腐蝕이 심해서 靑綠色을 띤다. 등대는 關部에까지 稜角을 세웠으나 鋒部에서 莖部에 이르는 등대가 다른 銅劍에 비해 肥大한 反面, 劍身部가 좁다. 또한 刃部는 넓은 편이고 鋒部는 좁다. 背部의 節帶는 明確하나 刃部의 破損이 심하여 外形上의 扶入部分이 分明하지 못하다. 背部, 莖部의 肥大現狀은 典型的인 細形銅劍의 形態에서 벗어난 變形된 銅劍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細形銅劍中에서는 後期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全長 24.5cm, 幅 3.2cm이다.

나. 細形銅鉞(圖面 1의 ②, 圖版 1)

白銅質로 된 銅鉞인데 鋒部, 刃部, 銚部가 部分的으로 破損되었다. 背部는 刃部와 맞추어서 양쪽으로 傾斜지게 身部 最大幅까지 稜角과 날을 세웠고 圓筒形 銚部는 鋒部 內面에까지 이르는 듯하다 比較的 身部는 좁고 銚部 入口에는 幅 0.8cm 크기의 一段帶를 돌렸는데 이 一段帶에는 다시 네모꼴의 凹文樣을 새겼다. 그러나 柄部와의 固定을 위한 耳의 役割을 할 裝置는 現存狀態에서는 確認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耳가 附着되어야 할 銚部 入口側이 破損되었기 때문에 當時 破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表面은 靑綠色으로 녹슨 자국외에 赤褐色의 酸化鐵과 같은 녹이 附着되어 있는데 銅鉞 自體가 鐵分을 含有한 것이었던지 아니면 土壙內의 土壤成分에 鐵分이 많은 데서 基因한 것인지는 確實하지 않다.

全長 21.6cm, 最大身幅 3.8cm이다.

다. 銅環(圖面 1의 ③, 圖版 1)

白銅質로 된 銅環인데 表面의 腐蝕이 심하고 이음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붙임 자국을 보이고 있다. 斷面 圓形의 銅線(直徑 0.4cm)을 등갈게 구부려서 만든 것이다. 確實한 用途는 알 수 없으나 혹시 前者의 銅鉞 銚部 入口 耳部에 附着되었다가 耳部가 破損되면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直徑 3cm이다.

라. 銅製 異形金具(圖面 1의 ④, 圖版 1)

白銅質로 比較的 完全하게 保存되어 있는데 그 用途는 알 수 없다. 管狀을 띤 2개의 金具를 옆으로 나란히 接合시켜 놓았는데 어느 쪽이 先端인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한쪽은 楕圓形으로 直徑이 크고, 한쪽은 작으며 前後 共히 막혀 있으면서 그 위에 「X」 또는 「+」 表示를 하고 있다. 對馬島에서도 同種의 金具가 3例 보이고 있다.¹⁾

1) 對馬島의 下가야노끼遺蹟, 峰村사가도우遺蹟, 豐玉村, 唐崎遺蹟 等地에서 각각 닦은 것이 發見되었다. 長崎縣 教育委員會「對馬」長崎縣 文化財 調査報告 第17集 1974.

日本에서는 이것을 雙頭管狀銅器라고 부르고 있긴 하나, 역시 用途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長 3cm, 連結幅 3cm이다.

마. 其他(圖面 1의 ⑤, 圖版 1)

이 靑銅遺物과 함께 赤褐色 軟質의 無文土器片과 유리구슬 3點이 出土되었는데 無文土器는 破損이 심해서 그 形體를 豫想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리구슬은, 2點은 玉인지 유리인지 分揀할 수 없을 程度로 맑은 점이 特徵이다. 이 구슬 中間位에는 長軸을 따라 구멍을 뚫어 실에 꿰어 매달 수 있도록 하였으며, 1點은 新羅地區 古墳에서 자주 보이는 코발트색의 小形 유리구슬로 中間에는 역시 圓形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3. 南海 小草島 出土 粟粒形 十字形把頭飾(圖面 2, 圖版 2)

1974年 여름 慶南 南海郡 昌善面 堂項里 小草島에서 雨水로 山沙汰가 있었는데 當時 여기서 無文土器片과 함께 銅劍와 把頭飾 1點이 發見되었다. 이 곳은 南海郡의 동쪽 끝으로 前記한 三千浦市 馬島洞遺蹟과는 隣接한 아주 작은 섬이다.

遺物은 小草島의 頂上部에 가까운 東斜面이 무너지면서 發見되었는데 이 遺物外에 눈으로 意識할 만한 遺構나, 遺蹟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資料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無文土器는 器形上 赤褐色 軟質의 小瓮 또는 Cup形에 가까운 것으로 별다른 特徵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把頭飾은 長橢圓形으로 靑綠色을 띠며 平面으로 보아서는 十字形이다. 比較的 完全한 形態를 維持하고 있는데 鑄造過程에서 胴部 表面에 9列의 粟粒狀 突起를 鑄出し킨 半筒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十字狀의 가장자리 表面은 無文인데 X字形으로 交替된 形態를 維持하고 있어 把手部와 連結할 때 단단히 매어질 수 있는 흠이 되도록 만든 듯하다. 이와 같은 特徵을 가진 把頭飾이 平壤附近²⁾과 日本 對馬島³⁾에서 各各 出土된 例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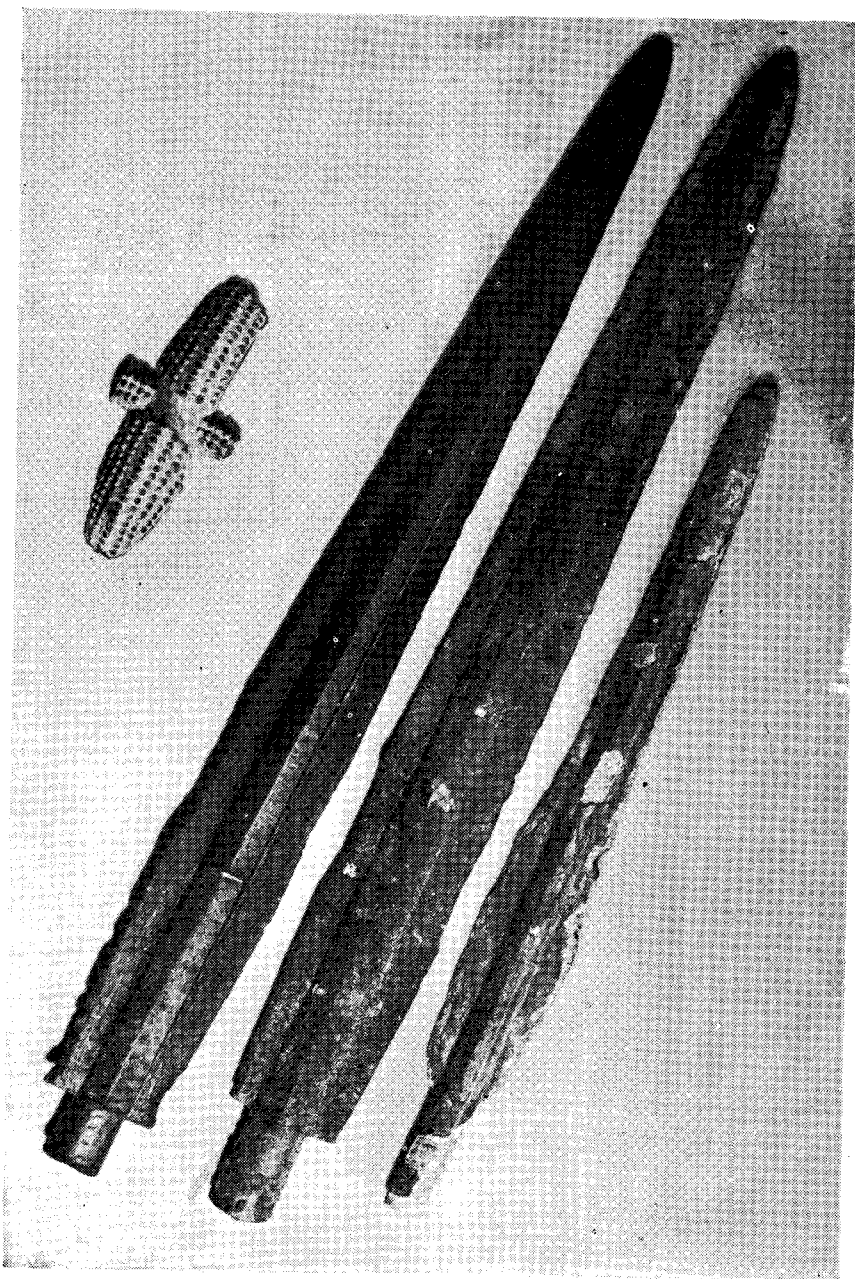
4. 固城 石芝里 出土 細形銅劍(圖面 3, 圖版 2)

白銅質로 刃部가 部分的으로 磨滅된 것 외에는 比較的 完存한 편이다. 등대의 稜角은 關部에까지 이르렀고 扶入部位에는 上·下節帶가 確實하게 남아 있다. 劍身의 扶入部는 基本 形狀을 維持하고 있고 刃部도 날카로운 程度로 잘 다듬어져 있다. 鋒部는 比較的 길며 先端部分이 若干 破損된 듯하고 關部는 莖部에 대해 垂直角을 이루며 莖部에는 上·下 鎔範의 이음자국이 있었으나 갈아 없앤 듯하

2) 梅原末治 外「朝鮮古文化綜鑑」第1卷 1946.

3) 對馬島 豐玉村 “키로쓰가浜”遺蹟에서 廣形銅鋒 B와 함께 發見되고 또 “시케노단”遺蹟에서도 發見되었다.

長崎縣 教育委員會「對馬」長崎縣 文化財 調査報告 第17集 1974.



圖版 2. 慶南地方 出土 各種 遺物
(左로부터 小草島, 石芝里, 禮安里, 林北里 出土)

다. 이 銅劍은 慶南 固城郡 下二面 石芝里 陽村部落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쟁이끝에 걸려 나와서 發見者가 오랫동안 닦아 가면서 保管하고 있다가 寄贈한 것이기 때문에 靑綠色의 녹슨 痕迹은 적고 오히려 본디의 모습인 談褐色 구리빛에 가깝다.

이 곳은 前記한 三千浦市와는 境界地域인데 部落의 名稱대로 碁盤式 支石墓가 部落周圍에 많이 分布되어 있어⁴⁾ 靑銅器時代의 生活이 빈번했던 곳이라 생각된다.

길이 31.3cm, 幅 3.3cm이다.

5. 金海 禮安里 出土 細形銅劍(圖面 4, 圖版 2)

白銅質로 比較的 完存한 狀態이다. 등대의 稜角은 關部에까지 이르렀고 扶入部位에 해당하는 등대의 上·下 節帶도 뚜렷하다. 扶入部는 磨滅없이 原狀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으며 劍身과 刃部 狀態도 變形없이 良好하게 維持되어 있다. 鋒部는 짧고 둥근 長橢圓形을 띠며 關部는 莖部에 대해 完全 垂直狀을 하지 않고 若干 圓形感을 갖게 하며 莖部에는 鎔範 이음자국이 確然하다. 表面은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지 靑綠色으로 녹슨 자국 위에 砂粒이 附着되어 있고 一部에서는 白銅質의 原狀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 遺物은 慶南 金海郡 大東面 禮安리에 있는 禮安里貝塚 周圍에서 耕土作業을 하던 중에 發見된 것인데 얼마 전에 釜山大學校 博物館에서 禮安里古墳을 發掘할 當時 莖部側이 남아 있는 同種의 銅劍破片이 採集된 바 있어⁵⁾ 이 銅劍과 함께 埋藏되었던 것이 지금 各各 分離된 채로 發見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全長 31.5cm, 幅 3.3cm이다.

6. 陝川 林北里 出土 細形銅劍(圖面 5, 圖版 2)

表面이 靑綠色으로 酸化된 데다가 破損이 심해서 銅質이나 形態를 알아보기 힘들다. 現存한 狀態에 의하면 등대의 稜角은 關部에까지 이르렀으나 扶入部에서 關部間의 稜角은 희미하고 가늘게 갈아졌으며 上·下 節帶의 痕迹도 뚜렷하지 않다. 其他 關部, 刃部, 鋒部, 莖部の 特徵은 圖面 5에서 提示하고 있긴 하지만 原狀이 아니어서 詳報할 수 없는 것이 흠이다.

이 遺物은 1978年 4月 慶南 陝川郡 栗谷面 林北里 上林 뒷산에서 農路開設作業을 행하던 중 發見된 것이다.

全長 21.3cm, 幅 2.5cm이다.

4) 慶南 固城郡 下二面 石芝里 一帶의 들판과 산기슭에는 碁盤式 支石墓가 많이 分布되어 있으며 石芝里라는 部落名도 支石墓에서 由來된 듯하다.

5) 1979年 겨울 釜山大學校에서 禮安里古墳을 發掘하던 중 莖部側이 남은 同種의 銅劍片을 當時 發掘 責任者였던 鄭 澄元教授로부터 現場에서 實見한 바가 있다.

7. 傳 慶北 永川 出土 一括 青銅遺物(圖面 6, 圖版 3)

먼저 이 遺物은 大邱에 있는 古美術品 商人으로부터 購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慶北 永川이라는 地名은 信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 紹介하고자 하는 것은 遺物 그 自體가 當時 國內에서 製作된 것이 確實하다고 判斷되기 때문에 그 資料的 價値를 勘案해서 실은 것이니 參考하기 바란다.

가. 細形銅劍 A(圖面 6의 ①, 圖版 3)

白銅質로 關部, 刃部, 鋒部の 破損이 심하다. 表面은 黑青色을 띠는데 근데근데 破損된 곳은 푸른 색을 띠고 있다. 稜角은 등대의 中央까지 세워졌으나 희미하며 上·下 節帶와 扶入部の 痕迹도 알기 힘들다. 劍身은 比較的 넓은 편이나 刃部가 남아 있는 곳이 드물고 짧은 鋒部는 兩側 刃部가 破損되어 뾰족하게 보인다. 關部 역시 破損되었기 때문에 莖部와의 稜角을 確認할 수 없고 莖部에는 鎔範자국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리 나라 細形銅劍으로서는 最古式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全長 28.2cm, 幅 3.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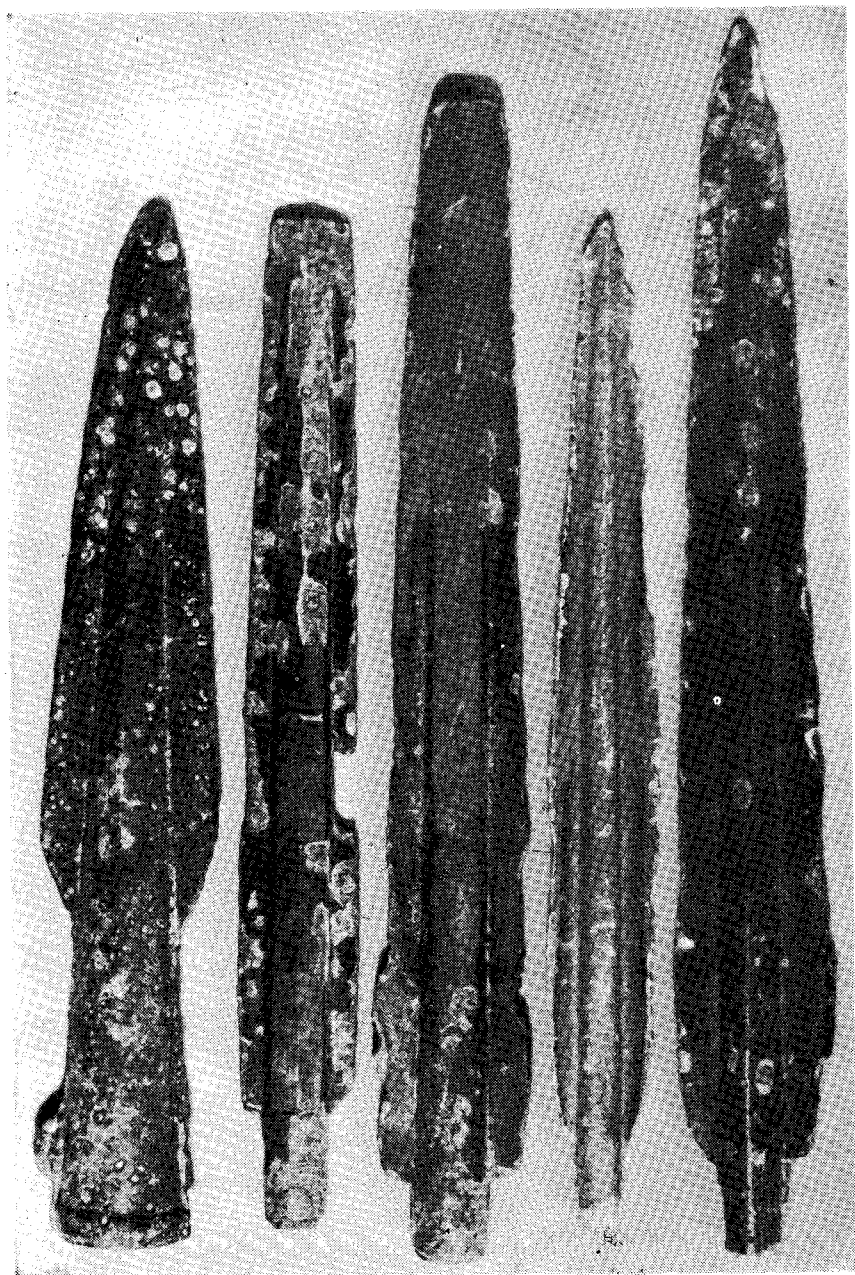
나. 細形銅劍 B(圖面 6의 ②, 圖版 3)

白銅質로 역시 關部, 扶入部, 刃部, 鋒部に 破損이 심해서 原狀을 把握하기가 힘들고 表面은 黑青色 바탕위에 靑綠色이 길다. 稜角은 등대의 中央까지 세워졌으나 前者A와 같이 희미하고 가늘며 上·下 節帶와 扶入部の 痕迹도 알아보기 힘들다. 比較的 刃部는 날카롭게 날이 세워졌고 鋒部는 짧으며 關部는 破損되어 알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莖部에는 양쪽으로 鎔範자국이 남아 있다. 全體의으로 規格面에서 보아 小形이라고 생각되나 形式面에 있어서는 前者A와 함께 古式 銅劍에 屬한다고 하겠다.

全長 23.1cm, 幅 2.7cm이다.

다. 細形銅劍 C(圖面 6의 ③, 圖版 3)

白銅質로 關部, 刃部, 鋒部가 破損되었으며 表面은 灰黑色 바탕위에 靑綠色이 길도록 녹슬어 있다. 등대의 稜角은 扶入部位까지 이어졌고 上·下 節帶도 뚜렷하다. 關部는 若干 破損되었으나 殘餘部分을 參考하면 莖部와 彎曲된 듯한 線으로써 垂直을 이루고 양쪽의 扶入部分은 破損되었다. 刃部는 大部分이 磨滅되고 鋒部는 類例없이 길어 一部 切斷되고 나머지 부분은 휘어졌다. 莖部에는 鎔範痕이 남아 있으나 背部가 劍身部에 비해서 肥大한 關係로 역시 他例에 비해 굵은 편에 屬한다는 것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이 銅劍을 前者A, B와 比較한다면 稜角이 扶入部에까지 이르고 關部가 彎曲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類似하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背部가 肥大하고 鋒部가 긴 점, 稜角과



圖版 3. 傳慶北永川出土一括青銅遺物

節帶가 뚜렷한 점 등은 A, B보다는 新式에 屬하는 形態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古式 銅劍을 長期 間에 걸쳐 使用할 경우에는 이런 形式으로 變할 수도 있겠다.

全長 26.3cm, 幅 3.5cm이다.

라. 細形銅劍 D (圖面 6의 ④, 圖版 3)

白銅質로 關部和 鋒部の 破損이 심하다. 表面은 黑色을 띠나 黑色이 腐蝕된 곳은 靑色으로 녹슬어 있다. 등대의 稜角은 關部에까지 이르고 上·下 節帶의 痕迹은 뚜렷하며 扶入部の 形態도 確然하다. 刃部는 大部分 磨滅되었으나 등대에 비해 劍身이 좁은 關係로 그렇게 넓지 않았을 것으로 豫想되며 切斷된 鋒部는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關部는 劍身 自體가 좁은 關係로 짧고 莖部와는 약간 傾斜角을 이룬 듯하며 莖部는 比較的 긴 편에 屬한다. 이 銅劍은 前者 A, B, C 보다는 그 形式面에서 新式에 屬하는 것이 特徵이다.

現長 22.7cm, 幅 2.8cm이다.

마. 細形銅鉞 (圖面 6의 ⑤, 圖版 3)

白銅質로 比較的 完存한 狀態를 더고 있다. 表面은 黑色에 가까우나 部分的으로 靑色の 腐蝕·酸化痕이 보인다. 稜角과 刃은 身部 最大幅까지 세워졌으며 圓筒形 釜部는 鋒部에까지 이르는 듯하다. 鋒部는 先端이 若干 破損되었으나 길지 않으며 釜部 入口에는 一段의 帶를 들렀다. 이 一段帶 바로 아래 부분인 上·下 鎔範의 이음선이 되는 곳에는 半圓狀으로 貫通되지 않은 납작한 귀를 달았으며 이 반대쪽에는 釜部 自體에 圓孔을 뚫었다. 이 귀와 圓孔은 鉞身部和 柄部를 連結하기 위한 固定裝置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現長 23.3cm, 幅 4.2cm이다.

8. 끝맺는 말

以上 紹介한 靑銅遺物들을 綜合해서 筆者의 所見을 加하기로 한다.

먼저 三千浦市 馬島洞 出土 一括 靑銅遺物은 함께 出土된 細形銅劍과 銅鉞의 特徵, 銅製 異形金具의 對馬島 同一例 出土, 유리구슬 共伴出土 等 諸事情들이 韓國 靑銅器時代의 遺物中에서는 時期的으로 後期 終末段階에 나타나는 現象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 즉 細形銅劍의 鋒部에서 莖部에 이르는 背部의 肥大함과 銅鉞 釜部 入口의 一段帶에 새겨진 주름살은 大田 槐亭洞,⁶⁾ 山淸 白雲里⁷⁾에서 出土된 典型的인 韓國 細形銅劍, 銅鉞와는 상당히 變形되고 發達된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銅製 異形金具의 對馬島 同例 出土는, 勿論 地理的인 差異에 의한 時間的인 隔差를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數世紀 以上の 差는 결코 들 수 없으므로 日本에서 同例를 彌生時代 後期前半(A.D.1~

6) 大田市「大田 槐亭洞 出土 一括 遺物」考古學 第2輯 1969.

7) 沈奉謹「慶南地方 出土 靑銅遺物の 新例」釜山史學 第4輯 1980.

2世紀)의 遺物로 編年하는 以上,⁸⁾ 相對的으로 크게 이 範疇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유리구슬의 共伴은 그 起源을 一旦 中國과의 文化交流關係에서 流入된 外來品으로 豫想할 때⁹⁾ 이 遺物들의 使用時期가 紀元前 1世紀를 前後한 것이 아닌가 豫測되고 있다.

두번째로 南海 小草島 出土 粟粒文 十字形把頭飾은 「朝鮮古文化綜鑑」에 의하면¹⁰⁾ 平壤附近에서 同例가 出土된 바 있고, 또 對馬島 豐玉村에서도 彌生時代의 後期로 編年되는 廣形銅鉞B와 함께 同例가 發見되고 있어¹¹⁾ 出土地가 正確한 日本 彌生式土器 編年을 빌린다면 그 使用時期는 前者 馬島洞 青銅遺物과 同一期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馬島洞과 小草島는 行政區域을 南海郡과 三千浦市로 分離하고 있지만 地域的으로는 近接한 곳에 있어 같은 時期에 對馬島와 더불어 南海岸一帶에 同一 內容의 文化圈이 形成되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번째로 固城 石芝里, 金海 禮安里, 陝川 林北里 出土 細形銅劍은 共히 作業途中에 우연히 發見된 것으로서, 遺物이 出土된 遺構의 特徵은 確實하지 않다. 그렇지만 遺物은 特徵이 모두 韓國 細形銅劍Ⅱ式에 屬하는 것들로서¹²⁾ 그 중에서도 比較的 小形으로 挾入部位에서 關部에 이르는 등대의 稜角이 희미하고 鋒部가 짧은 것으로 豫想되는 陝川 林北里의 것이 가장 古式에 해당되고 그 다음이 鋒部가 짧고 關部가 若干 둥근 감이 있으며 劍身幅이 넓은 金海 禮安里의 것이 中間에 해당되며 鋒部가 길고 關部가 莖部에 垂直한 固城 石芝里의 것이 新式에 屬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 細形銅劍의 使用時期는 大略 山淸 白雲里 出土 一括 青銅遺物과 同一時期의 것으로 豫測되는데 그 實年代는 紀元前 2世紀頃으로 判斷된다.¹³⁾

마지막으로 傳 慶北 永川 出土 一括 青銅遺物은 前言했다시피 古美術品 商人으로부터 購入한 것이기 때문에 出土地名은 勿論, 이 遺物들이 一括해서 한 곳에서 出土되었다는 保障조차도 信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등을 念頭에 두고 論議하고자 한다.

먼저 細形銅劍 A, B, C, D중 A, B는 稜角의 位置, 鋒部의 길이, 劍身의 幅, 關部의 形態等 諸 特徵으로 미루어 보아 細形銅劍Ⅰ式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머지 C, D는 前者보다 新式에 해당되는 細形銅劍Ⅱ式에 屬하므로¹⁴⁾ 이들 一括 遺物이 同時期에 製作 또는 使用되었다는 確實한 保障을 얻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勿論 같은 遺構內에서 出土된 것이라는 忠南 南城里¹⁵⁾나 慶南 白雲里의 경우와 같이 遺物個中에는 形式面에서 그 特徵이 若干 相異한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例로 보아 넘겨야 妥當할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앞으로 時間을 두고 생각해 볼 問題라고 여겨진다.

8) 長崎縣 教育委員會에서 發刊한 「對馬」의 報告者들은 모두 彌生時代 後期前半, 즉 A.D.1~2世紀頃의 遺物로 推定하고 있다.

9) 一旦 여기에 共伴해서 出土된 유리구슬은 前漢代의 것이 輸入된 것으로 推定한다.

10) 梅原末治 外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1946.

11) 長崎縣 教育委員會 「對馬」 長崎縣 文化財 調査報告 第17集 1974.

12) 尹 武炳 「韓國 青銅遺物의 編年」 白山學報 第12號 1972.

13) 沈 奉謹 「慶南地方 出土 青銅遺物의 新例」 釜山史學 第4輯 1980.

14) 尹 武炳 「韓國 青銅遺物의 編年」 白山學報 第12號 1972.

15) 韓 炳三 外 「南城里 石棺墓」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10冊 1977.

한편 銅鐃은 細形銅劍Ⅱ式에 共伴되는 特徵을 하고 있다. 따라서 永川 出土 一括 遺物의 경우 現在로써는 全面的으로 다루지 말고 個個의 特徵을 參考하여 資料로서 選擇함이 좋을 듯 싶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傳 慶北 永川 出土 一括 遺物을 除外한 本校의 靑銅遺物은 모두 慶尙南道內에서, 특히 南海岸地方에서 주로 出土되었기 때문에 南海岸과 日本 西北 九州地方을 連結하는 當時의 海洋文化圈을 研究하는데 그 資料的 價値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時期的으로 우리 나라 靑銅器時代 末期, 즉 紀元前 1世紀를 前後한 時期의 靑銅器 編年問題를 試圖하는데 있어서 그 資料的인 役割이 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바이다.